

장성서도 '신종플루 돼지'

전남 20개 농가 오리 3만여마리 바이러스성 감염 폐사

당국 방역 비상

전남에서 돼지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되고,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수만 마리의 오리가 폐사해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등 긴장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성군 북일면 S종돈장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돼지 신종플루 감염은 지난 14일 경북 구미 등 5개 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장성 등 전국의 9개 양돈장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감염이 확인된 농장은 장성군 S종돈장을 비롯한 경북 군위·경주·영천·경산의 5개 농장과 경기 파주 1곳, 경남 고성 1곳, 제주 1곳 등이다.

S종돈장 2천590마리를 비롯한 이들 9개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1만9천여 마리 규모다.

전남도는 돼지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양성반응을 보인 돼지가 발견된 농장에 대해 3주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도 신종플루 돼지 발생 양상과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돼지에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총 1천200개(80만 마리) 돼지 사육농가 중 287가구 4천879 마리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벌였으며, 이날 수의과 학검역원으로부터 S종돈장 돼지의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관두석 전남도 축산방역 담당은 "돼지 신종플루의 경우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전파되지만, 돼지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없어 살(殺)처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염 2~3일부터 바이러스가 급격히 감소해 일주일 뒤에는 자연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항체 형성 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뒤 출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 내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만여 마리가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폐사하는 등 오리 바이러스성 감염도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벌인 결과 최근 나주와 영암·화순·무안 등 도내 9개 시·군 20개 농가 오리 15만6천805마리가 바이러스성 감염에 감염돼 이중 21%인 3만3천325마리가 폐사했다. 전남도는 겨울철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5일 감염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차단 방역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오리 바이러스성 감염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매년 16~32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발생 건수의 절반 정도가 전남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질병은 3주령 이내의 어린 오리에 급성으로 감염돼 웅크림, 보행이 힘듦 등 증상을 나타내며, 전과가 빠르고 최고 95%까지의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2종 가축 전염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감염된 오리는 즉시 폐사하거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한 오리가 식용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동 성범죄 꼼작마" 검찰 '수호천사' 된다

광주지검 순천·목포지청 276명과 1대1 결연

검찰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에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호천사운동'에 나섰다.

1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검 산하 순천지청과 목포지청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각각 아동 157명, 119명과 결연을 맺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호천사 운동'은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상으로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이 1대1 결연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활동으로, 지난 10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아동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시행됐다.

순천지청은 순천과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지역 초등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매주 2~3회에 걸쳐 등·하굣길 동행 지원 및

방과 후 학습·인성지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목포지청은 관내 관모·편부·조순 가정의 아동 등 119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장학금 전달 등 아동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의 '수호천사 운동'은 아동 범죄 예방 및 근절을 목표로 전국 57개 검찰청에서 아동 2천 177명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호천사 운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들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목포대 6대 총장에 고석규 교수 당선



목포대학교 6대 총장에 고석규(53·역사학전공·사진) 교수가 당선됐다.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16일 목포대 박물관에서 치러진 이번 총장 선거에서 고 교수는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94표를 얻어 박민서(54·사회복지학) 교수를 54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총 투표인수는 교원 301명, 직원 153명 등 모두 454명이며 교원 대비 직원투표 반영률은 11.5%다.

고 교수는 서울대에서 문화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목포대 기획협력처장, 누리(Nuri) 다도해문화콘텐츠사업단장을 역임했다.

목포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고 교수와 차점자인 박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할 예정이며, 신임 총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4분 해질 17시 22분 달돋이 08시 09분 달질 17시 55분

눈길 운전조심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이 1.5~4m로 높게 일겠다.

지역	기온
광주	흐리고 눈 -4/2℃
목포	흐리고 눈 -3/2℃
여수	흐리고 눈 -4/2℃
완도	흐리고 눈 -2/2℃
구례	흐리고 눈 -5/1℃
애남	흐리고 눈 -3/2℃
장흥	흐리고 눈 -4/3℃
고흥	맑음 -4/3℃
순천	맑은뒤 흐림 -4/2℃
영광	맑은뒤 흐림 -4/0℃
진도	흐리고 눈 -2/2℃
전주	흐리고 눈 -5/0℃
남원	흐리고 눈 -8/1℃
옥산도	흐리고 눈 0/2℃

바다	방향	파고	해상안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관심	낮음	낮음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관심	낮음	낮음
	북서~북	2.0~3.0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5/0	-5/1	-4/2	-2/5	-2/8	-1/10

휴일까지 강추위·눈...

예상 적설량 1~8cm

휴일인 20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강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된다. 특히 17일 밤과 18일 오전 사이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광주·전남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흐리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16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8cm, 기상청은 합평과 영광 등

에 대해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하 1도로 전남보다 더 낮았으며, 강한 바람까지 몰아쳐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진도 영하 6.6도, 영광 영하 5.9도, 화순 영하 5.2도, 광주 영하 4.6도 등을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김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병원, 세계 가장 빠른 CT 도입

초당 43cm 촬영 가능

전남대학교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컴퓨터 단층촬영기

기(CT)를 도입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6일 "현존 컴퓨터단층촬영기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소마톰 데피니션 플래시(SOMATOM Definition Flash)' CT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북미방사선의학회(RSNA)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 기기는 초당 43cm를 촬영할 수 있으며 심혈관 촬영은 0.25초, 부위별 촬영은 0.6초, 전신촬영은 5초 안팎이 가능하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심혈관 촬영, 뇌혈관 검사 등의 진단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노인, 어린이, 응급 환자처럼 숨을 참기 어려워 검사가 힘들었던 환자들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CT)를 도입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6일 "현존 컴퓨터단층촬영기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소마톰 데피니션 플래시(SOMATOM Definition Flash)' CT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북미방사선의학회(RSNA)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 기기는 초당 43cm를 촬영할 수 있으며 심혈관 촬영은 0.25초, 부위별 촬영은 0.6초, 전신촬영은 5초 안팎이 가능하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심혈관 촬영, 뇌혈관 검사 등의 진단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노인, 어린이, 응급 환자처럼 숨을 참기 어려워 검사가 힘들었던 환자들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대축제

● 행사기간: 2010. 2. 28까지

객실료 110,000 (초당 43cm 촬영 가능)

레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한정수량)

고객 사은 주선 (1000명 한정) | Happy New Year Party | 노래와 춤으로 기념 일 박만 축하

● 신청 및 문의: TEL. 061-270-8000

냉·온 장수기 판매 월 19,900원

장수기프라자 1544-1219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눈썹, 미용,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스타일링,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킨케어

1888-671-1199